부처님 법을 한시라도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선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대로 이끌어 주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대로 이끌어 주는 그런 수십억의 중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도 가끔 하죠. 팥죽을 쑤는데 끓어오르는 팥죽 방울을 보고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하고 주걱으로 쳤다는 얘기 잘들 아시죠. 그 주걱으로 죽 방울을 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뜻을, 그 속에 있는 뜻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또는 경을 달달 외워서 강의를 잘하고 이런 게 참선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 무지렁이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법을 한 시라도 떠나지 않는다면 그게 참선이죠. 내가 먼저 나왔으니까 나로부터 화두요, 나 자체부터 알 양으로 노력하는 것은 불씨를 심어서 싹을 틔우는 거나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두가 이러한 관계상 인과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것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동적인 법칙입니다. 모든 만남이, 교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발전을 하고 또는 '이것이 안 된다, 된다' 하고 법석이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거를 가만히 생각한다면 '아이고!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이거, 이거 뭐,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해서야 나라가 잘될 수 있어?' 이러지마는 부딪치지 않는다면 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하하.

이 모두가 상대적인 원리로써 이렇게 가는데, 부처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선(禪)이다' 그런다면 이거를 붙이고 안 붙이고를 떠나서, 인연에 따라서 딱 붙이면, 즉 전선 줄과 전선 줄을 한데 붙이면 불이 확 일어나서 불이 들어오는 그 광명을 바로 선이라고 하는 건데 양면의 이 줄을, 갖다 붙이는 줄을 가지고 '이게 틀리다 이게 옳다' 하니까 그래서 "놔라"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놔라. 물질계와 정신계를 그냥 놔라. 놔야만이 이게 모두가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중심이 일체를 다 자동적으로 굴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하나는 움쭉도 안 합니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우주가 다 망가진다 하더라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꿈쩍도 안 하는데, 그게 왜 꿈쩍도 안 하느냐. 은하계의 중심도 태양계의 중심도 이 우주의 중심도 이 인간의 중심도, 모두가 중심은 하나로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은하계에서 태양계로, 태양계에서 지구로, 허허, 모두 별성이나 혹성이나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에너지 광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뒷면에서 나오죠, 중심 뒷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마음의 샘터다 하는 것도 모두가 연관성이 있음으로써 이 마음의 샘터에 샘도 나올 수 있고, 그냥 누구나가 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아예 쓸모가 없어.' 그러고 그냥 다 내치면 아예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산송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잘 가는 동안에 의욕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기고, 얼굴이 좋아지고, 다복해지고, 짜증도 안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조그만 것 하나로부터 큰 우주의 삼천대천세계를 집어먹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집어먹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나를 죽여서 내가 될 수 있어야만이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이 몇 마디 안 해 드리는 것을 잘 참작하셔서 행하세요.

스님네들은 신도들을, 법우님들을 만날 때 무조건이요, 이유가 없어야 하고 신도님들은 신도님들대로 믿음이 진실해야 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하고, 또는 마음과 마음,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도리를 알아야 하고,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고 일체제불의 마음, 이 스님들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먹는 대로 한 찰나에 들고 한 찰나에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자1(남) 오늘도 법 자리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수행자 한 분이 "불경은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성경에는 삼십육천이 있고 불경에는 삼십삼천밖에 없으니까 우주를 다 간파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견해로 볼 때는 유의 법으로 보면 사람이 겨자씨만 하지만 영체 이탈 한 성인의 경계로 볼 때는 삼천대천세계가 공만 할 건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경에 차이가 나서 범부들이 헷갈리게 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여쭙니다.

큰스님 하하하.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데 어느 스님 한 분이 아, 백지를 보고 있거든요. 백지 말입니다. 그거 옆에서 아무리 봐도 백지를 보고 앉았으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과거 보러 가는 사람이. 그래서 "아니, 노스님은 어째서 백지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도 볼 게 없는 백지를 왜 보십니까?" 하니까 그 노승이 있다 하시는 소리가 "자네도 백지를 볼 줄 알아야 과거를 볼 수 있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과거만 봐서뿐이 아닐세. 또 국민을 제도하는 데도 역시 백지를 볼 줄 알아야 제도를 할 수 있네."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긍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도리가 없더랍니다. 정신계로부터 물질계로 나오는 이 사실을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깐 그날 저녁에 "자네는 내가 지금 아무리 말을 해 줘도 모르니 이따 보세." 아, 그러더랍니다. 밤에 자는데 꿈에 턱 나타나서 이러이러하다 하고 일러 주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봐서 박문수가 되었답니다. 하하하.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지구 사바세계를 중세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생이 체를 벗어나면 마음 따라 마음세계로 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리를 볼 때 이곳 사바세계처럼 색류의 체를 갖고 공심, 공생 하는 땅이 우주에 또 있는지 의문이 생겨서 여쭙고자 합니다.

큰스님 이거 보세요. 마음의 도리라는 것은 삼천대천세계를 집어먹어도 남음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있고 없고 그것을 생각 마시고 지금 몸속에 들어 있는 수십억 마리의 의식이나 한마음으로 모아서 내 말을 척척 들을 수 있게끔, 따라줄 수 있게끔만 하시면 이 우주 공간의 전부를 알게 될 겁니다, 아마.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부처님 제자는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의 세 가지 밝은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누진명은 용심으로 해석을 하여도 무방한가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것도 다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천안, 천이, 타심, 숙명, 신족, 이 모두 이것이, 예전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야,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먹지 못하고 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이것이 도가 아니니라. 아무 이름 없이, 오신통 이름 없이 그냥 물을 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참선이니라.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아닌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법이라 이것입니다.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보시, 업보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더 여쭙고 싶습니다. 누가 인도에 가서 거지에게 돈을 주니까 인도 거지가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고 또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돈을 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느냐 하니까 인도 거지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공덕 베푸는데 왜 내가 고맙다고 하느냐." 그래서 돌아서 갔더니 또 돈 달라고 해서 "조금 전에 줬지 않느냐." 하니까 "당신 복 지으라고 그러는데 뭣이 나쁘냐."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하더랍니다.

요 경우와 누가 보면 절에 '오늘 얼마 갖다 줘야지.' 하고 나가다가 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디 어디서 왔는데 오늘 요거만 냅니다.' 하고 돈을 주고 갑니다. 이런 경우에 보시의 과보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거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줬으면 준 대로 그냥 받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닌 받는 것이지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갈 때에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아, 내가 돈 준 거 생색내겠습니까? 그와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달라는 건 뭡니까? 굳이 달래서 주는 것은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요만한 것 하나를 시주를 한다 하더라도 내 주인공에, 이게 주인공과 더불어 일체제불의 마음이 한마음이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다 할 때 내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갖다 내는 거지, 스님네들을 위해서 갖다 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생각들 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갖다 주는 게 있던가 없던가.

그러나 이 스님네들이 잘못 생각하고 '나는 스님이니깐 내게 갖다 줬겠지.' 한다면 이거 오산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쓰레기를 치워 달라고 갖다 주는데 내 이 고깃덩어리가 치울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체제불의 한마음, 즉 불바퀴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이도 없고 준 사이도 없이 보시를 하고, 누구한테 무엇을 건네주더라도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큰스님 아까 첫 번에 뭐라고 그랬죠?

질문자1(남) 성경에는 삼십육천 하늘이 있고 불경에는 삼십삼천 하늘이 있다.

큰스님 그 말을 묻는데 내가 그 대답한 것을 잘 이해를 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는 모두 이론이다 이겁니다.

질문자1(남) 예. 알겠습니다.

질문자2(남) 저는 학문적인 질문보다요, 사적인 부탁을 큰스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사실 저의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현재까지 자리에 누워계시는데 여태까지 세 번의 뇌수술을 받고도 아직까지 쾌차함이 없이 오히려 지금은 증상이 더 악화되어서 말을 못 하십니다. 큰스님께 어떡하면 저의 어머니 건강이 완쾌될 수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지만 이 마음의 도리를 안다면 몸체의 중생들이, 의식들이 다 본인의 마음에 따라 주고 작용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지 내가 하고자 한다면 아니 되는 게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병뿐이 아니라 일체 만법이 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알 수도 없고 가설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가설이 됐어야 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청년이 열심히 해서 어머니라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에다가 모든 거를 맡기고 열심히 '내 주인공만이 우리 어머니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져야죠. 또 환자가 먹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보호자가 먹는 그 양식을 잘 보필함으로써 일은 제대로 벌어지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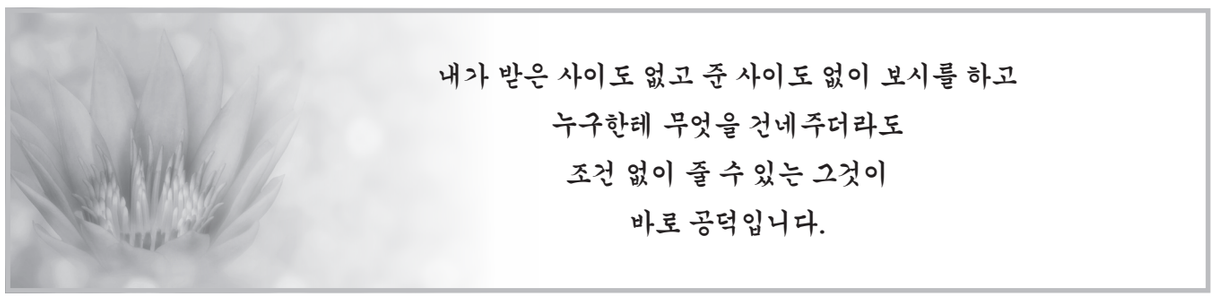
(중략)

사회자 질문이 많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오늘 이만큼 하고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여러분 마음은 체가 없어서 두루두루 돌아가도 돌아간 사이가 없이 한마음이 만공에 꽃핀다면, 그 꽃내음은 우주 전체를 두루 할 것이요, 또 그 열매가 열린다면 만 중생들 전체가 그 맛을 알고 만 가지 맛을 알게 되고, 그 열매 하나를 중생이 다 먹고도 그 열매는 되남을 것입니다.

지금 산 분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죽은 분들도 여기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쯤 아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공부니만큼, 환상을 자기로 알지 마시고, 나중에 형상이 형상 아님을 또 알 때까지 공부 열심히들 하십시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3월 15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